

환율 전망 및 농식품 수출 영향

□ 환율 전망

- (달러)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원/달러 환율 하락세가 회복될 전망이나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달러 공급 우위 상황이 다시 부각되며 1,050원선을 하회할 가능성 시사
- (엔화)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추가 통화완화가 불가피하며 일본 내 투자자금의 해외유출 등으로 엔/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
- (위안화) 수출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국 실물경제 부진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단기적으로 상승, 하락 요인이 공존

< 주요 통화 환율 추이(월평균) >

구 분	'13. 6월	'13. 12월	'14. 3월	6월	8월	10월	11월
달러(원/달러)	1,136.34	1,055.26	1,070.30	1,018.90	1,024.54	1,061.26	1,097.94
엔 화(원/100엔)	1,167.46	1,019.76	1,046.19	998.78	994.99	983.09	944.91
위안화(원/위안)	185.23	173.71	173.63	163.59	166.40	172.97	179.03

< 주요국 환율 동향과 전망>

구분	현 상황	요인	전망	원화 대비
미국	9월 이후 강세	기준금리 인상 기대, 호전된 경기, 일본·EU 양적완화 가능성 등	장기 강세	미약한 강세 또는 약세
일본	달러 대비 약세 지속	아베노믹스 효과 반감, 경상수지 악화, 소비회복 둔화 등	엔저 심화	추가 절하되며 엔저 심화 가능성
중국	달러 대비 등락 반복	경기 회복 불확실성 증대, 중국 정부 핫머니 규제, 부동산·그림자금융 리스크 등	소폭 절하	위안화 가치 소폭 절하

□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 영향

- 농식품 수출의 경우 시장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일 수출비중이 높아 엔화 환율 변동에 특히 취약
 - * 주요 국가별 농식품 수출 비중('13) : 일본 23%, 중국 17%, 미국 9%
 - 대일 농식품 수출은 10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물량은 8.9% 증가한데 반해 금액은 2% 증가
 - 특히 신선 농산물은 수출량은 10.7% 증가, 금액은 △7.6% 하락
 - * (파프리카) 물량 7.4%, 금액 △6.3 / (장미) 물량 △29.3, 금액 △46.7
 - 일본기업이 엔저 강화·장기화를 확신하며 수출 가격을 내리면 제 3국에서 일본 식품과 수출 경합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
- 지속적인 환율 하락으로 수출업체들의 수출경쟁력 저하되고 있으나 환율 하락이 장기화됨에 따라 환변동보험 가입 등 수출업체의 환리스크 방안 마련 및 관리 능력 향상

< 환변동보험 지원 >

- 개요 : 환위험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수출대금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
- 지원대상 : 농식품 수출업체(수산물, 임산물, 연초류 제외)
 - * 제외대상 :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무역협회,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기 지원받은 업체
- 지원 상품 : 일반형, 범위제한 선물환, 옵션형(부분보장, 완전보장)
- 지원 비율 : 가입보험료의 95%
- 지원한도 : 30백만원 한도
- 문의 :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각지사 및 무역보험공사